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지동원·윤빛가람 '젊은피' 수혈

〈전남 드래곤즈〉 〈경남 FC〉

■ 조광래호 1기 출범

박지성 등 해외파 12명 합류

이동국 제외… 세대교체 시작

11일 나이지리아전 데뷔전

〈지동원〉 〈윤빛가람〉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비롯한 국외파 12명과 윤빛가람(경남), 지동원(전남) 등 K-리그에서 활약하는 '젊은피'들이 '조광래호 1기생'으로 뽑혔다.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서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치를 조광래(56) 감독은 5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나이지리아와 경기에 나설 25명의 대표 선수를 발표했다.

25명 중에는 앞서 조 감독이 소집을 요청한 국외파 13명 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청용(볼턴)만 빼놓고 12명이 포함됐다.

조 감독은 "이청용과 어제 통화를 했다. 훈련 시간이 적었던 탓에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와 받아들였다. 다음 A매치 때에는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외파는 대표팀 주장 박지성을 비롯해 박주영(AS모나코), 기성용(셀틱), 이영표(알 힐랄), 이정수(알 사드), 김보경(오이타) 등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표 6명이 조광래호 출범 첫 경기에 참가한다. 남아공 월드컵 직전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중앙수비수 곽태휘(교토)와 공격수 이근호(감바 오사카)도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조영철(니가타), 김민우(사간 도스), 김영권(FC도쿄) 등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주역과 박주호(이와타) 등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 7명이 조 감독 앞에서 기량을 뽐낼 기회를 잡았다.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가 25명 중 13명으로 절반이 넘지만, 조 감독은 K-리그의 숨은 진주를 찾아내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성공적으로 틀을 잡은 한국축구의 세대교체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빛가람과 지동원의 발탁이 대표적이다.

2007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했던 미드필더 윤빛가람은 올해 경남FC에 입단해 조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18경기에서 4골 4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올해 프로축구 19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자리매김한 스트라이커 지동원도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돼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FIFA U-20 월드컵 8강 진출에 힘을 보탠 수비수 홍정호(제주)도 처음 A대표로 뽑혔다. 조 감독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예전의 실력을 되찾은 미드필더 백지훈(수원)도 불러들였다.

이번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갖는 베테랑 골키퍼 이운재(수원)도 후배 정성룡(성남), 김영광(울산)과 함께 마지막으로 대표팀 소집 명령을 받았다.

다만 조 감독은 공격수 이동국(전북)은 부르지 않았다. 대표팀은 9일 낮 12시30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여 훈련을 시작하고, 11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2014년 내다 본 태극전사 발탁 이동국은 나의 축구와 거리감"

'젊고 빠른 축구'를 내세운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이동국(전북)이 자신의 축구 색깔에 적합하지 않아 주요 공격수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광래 감독은 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설 25명의 '1기 조광래호'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광래 감독의 일문일답.

-대표팀 선발의 배경은.

▲2011 아시안컵과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해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와 그동안 좋은 모습 보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뽑았다. 나이 어린 선수가 많지만 기존 선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국이 빠진 이유는.

▲이동국은 국내 리그에서 득점도 많이 하는 좋은 선수다.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축구를 운영하려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가 필요하다. 내가 추구하는 축구와 거리가 있다는 점도 탈락 이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원하는 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동국이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발탁 할 수도 있다고 본다.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가 많은데.

▲대표팀은 어린 선수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에 뽑힌 선수들은 어리지 않다. 지동원(전남)은 나이는 어리지만 플레이 형태는 기존 선배들 못지않게 여유가 있고 기술도 뛰어난데다 득점력도 있다. 윤빛가람(경남)은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미드필더로 패스가 뛰어나다.

-박지성의 활용법?

▲공격라인은 예전에 했던 형태로 이끌 생각이다. 투톱 스트라이커에 박주영(모나코)가 서면 왼쪽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나선다. 오른쪽 날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양쪽 측면 공격수를 벌리는 것보다 안쪽으로 좁혀서 쓰겠다. 양쪽 측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도록 하겠다. 박지성은 이번에도 계속 주장을 맡을 것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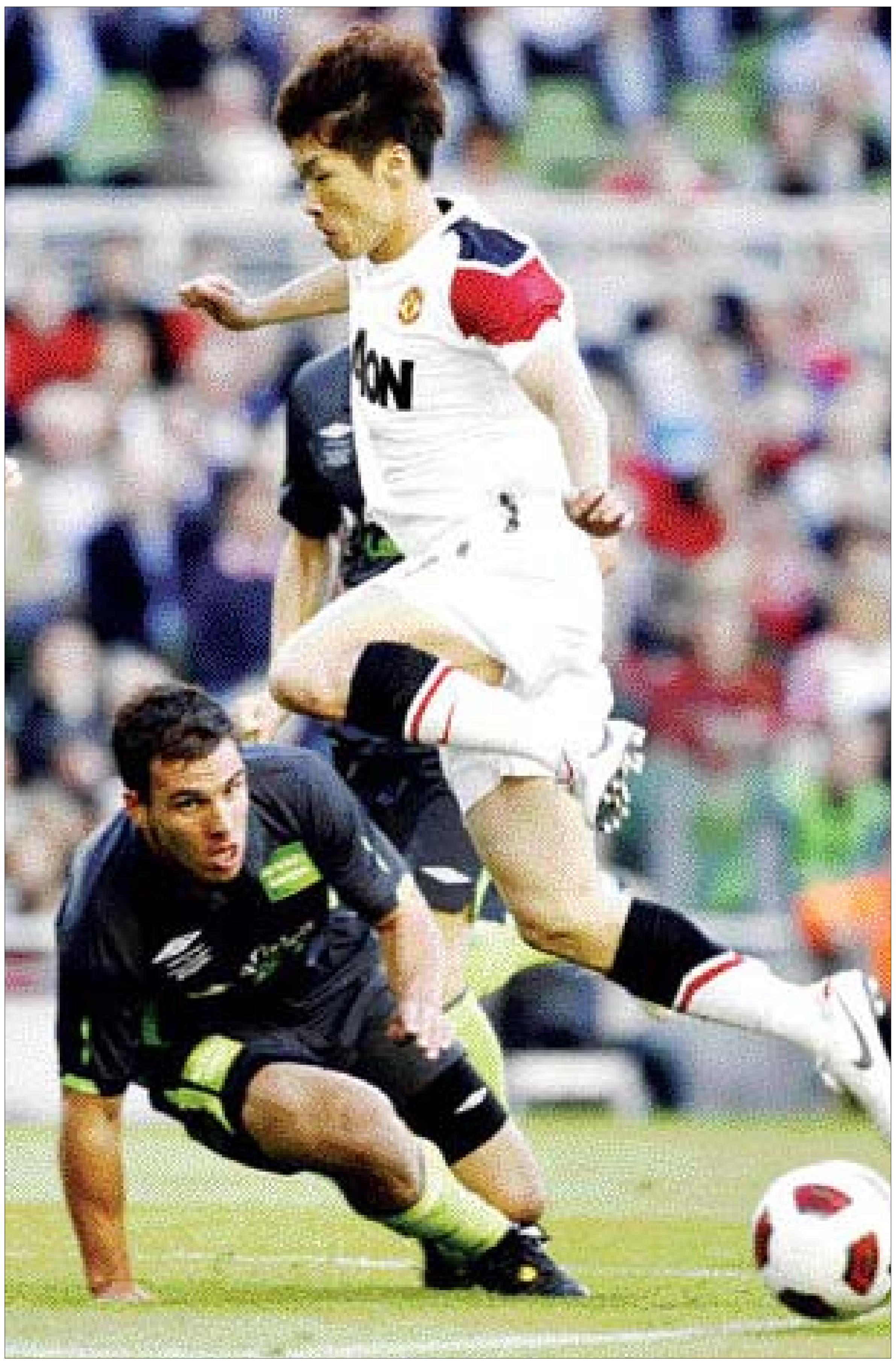
축구 기대주 손흥민 첼시전서 결승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V와 1군 계약을 한 기대주 손흥민(18)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첼시를 상대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5일 오전(한국시간) 홈 구장인 독일 함부르크의 임테크아레나에서 열린 첼시와 친선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42분 결승골을 넣어 함부르크에 2-1 역전승을 안겼다.

손흥민은 후반 37분 페널티지역 내 오른쪽에서 베테랑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를 제치고 과감하게 공을 몰고 가 왼발슛으로 첼시의 골망을 흔들었다. 9차례의 친선경기에서 9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판 니스텔로이(8골)를 제치고 프리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축구 명문 동북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떠난 손흥민은 지난해 FIFA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태극전사 중 최다인 3골을 터트려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끈 유망주다. ./연합뉴스



박지성 5일(한국시간) 새벽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일랜드 프로리그 베스트 11과 친선전에서 볼을 몰고 골문으로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박지성, 2골 1도움 폭발

프리시즌 아일랜드 올스타와 친선경기서

'캡틴'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010-2011 시즌 개막을 앞두고 처음 출전한 프리시즌 매치에서 64분을 뛰면서 2골을 넣고 도움 1개를 배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박지성 5일(한국시간) 새벽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아일랜드 프로리그 베스트 11과 친선전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팀의 선제골을 넣었다.

박지성은 이어 전반 25분 마이클 오언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 18분 팀의 다섯 번째 골을 터트린 뒤 후반 19분 루이스 나니와 교체됐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국내에서 휴식을 취했던 박지성은 지난달 27일 출국, 팀 동료와 호흡을 맞춘 지 일주 만에 경기에 나서 공격 포인트 3개를 올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완벽한 몸 상태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7골을 쓸어담았지만 2골 이상 넣은 선수는 박지성 뿐이다.

맨유는 박지성의 활약을 앞세워 아일랜드 프로리그 베스트11을 무려 7-1로 꺾었다.

오는 8일 첼시와 커뮤니티실드(FA컵 우승팀과 정규리그 우승팀간 대결)를 앞두고 박지성을 비롯해 웨인 루니와 마이클 캐릭, 네마냐 비디치 등 주전급 선수들을 모두 선발로 내세웠다.

박지성은 전반 13분 오른쪽 측면에서 때린 슛이 수비수에 막히자 곧바로 압박을 가했고, 수비수가 걷어내려던 볼이 박지성의 발에 맞고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행운의 골이 터졌다. 박지성은 전반 25분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오언의 결승골을 도왔다.

박지성은 후반 18분 조니 에반스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를 골문 앞에서 오른발로 슛으로 팀의 다섯 번째 골을 폭발하며 승리의 주연이 됐다. /연합뉴스